

임실, 청소시스템 획기적 변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대폭 개선, 청소체계 권역화 책임 읍면장제 도입

임실군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놨다.

군은 생활폐기물을 더욱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권역별 관리책임제와 가로청소 전담팀 운영 등을 도입해 청소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임실군 청소행정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지역에 최적화된 청소대책을 만들었다.

권역별 관리책임제는 수거·운반체계를 새롭게 하는 획기적인 청소행정으로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권역별 관리책임제는 12개 읍·면을 5개의 권역으로 관리하는 형태다.

5개 권역은 임실읍과 오수, 관촌, 강진, 운암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책임 읍면장제가 시행된다.

책임읍면장제는 담당 권역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단, 음식을 쓰레기는 청소위생과에서

일괄 수거한다.

이 시스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군은 지난 11일 환경미화원의 재배치를 대폭 실시했다. 군은 그동안 4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면은 환경미화원 1명만 배치되어 있어 매립장 및 주변 지역의 인력·장비의 효율성은 생활폐기물의 자체적인 수거·운반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권역별 인력배치로 인해 협력수거가 가능해져 이 문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어 청소인력 재배치 후인 13일 각 부읍·면장과 함께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과는 효율적이고 혼선 없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세부적인 수거 노선 및 운반 방법을 수정·보완했다.

18일에는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의 안전화, 안전조끼 등

보호장구 착용, 3인 1조 작업 실시, 그리고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적재장치 안전멈춤장치 설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의무사항을 교육하고, 즉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수거체계 개선에서 눈여겨 볼 것 중 하나는 가로청소 전담팀 운영이다. 기존에는 노면청소차량 한 대로만 운영하다 보니 몇몇 시가지 도로 외에는 주기적인 청소가 어렵고, 군과 읍·면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 상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가로청소 전담팀의 구성으로 가로청소 노선이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치 및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가능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예방에도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권역별 관리책임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부족한 차량 및 장비의 추가 확보, 수집·운반 작업자의 휴게시설 확충 등 당면 과제를 빠른 시일안에 해결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올해 18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조림지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공익림가꾸기 등

남원시는 올해 18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1,130ha의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으로,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덩굴제거 등의 나무 나이에 맞는 사업설계·시공으로 산림자원의 가치증진과 산림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원시에서는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산림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재해예방, 고급목재생산,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 개선 등 경제·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본 사업 참여근로자 연 7,600여명의 고용효과로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 하고 있으며, 부산물을 땀감 등으로 이용해 목재의 활용가치를 높여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2일부터 시행

임실군은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를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어도 법적인 절차, 증거서류 보완 등 복잡한 과정,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민원인들이 지방세 이의제기에 임무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군은 실질적 권리구제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세무대리인 제도를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절차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선정 신청하면, 군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063-640-2183)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 35개 사업 확정

임실군에서는 지난 28일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농업관련기관,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모임, 농업관련부서 등 심의위원회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임실군 농촌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역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지역특화작목인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에는 작물환경, 소득작목, 과수, 채소, 생활지원 등 35개사업에 총 15억 8,700만원이다. 위원들은 시범사업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64개소 사업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농가 및 단체는 사업추진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분야별 담당지도사의 사전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제주에 3월부터 쌀 공급

남원시는 남농영농조합법인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백미, 찰쌀, 현미 등에 대한 전국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오는 3월부터 2021년 2월말까지 연간 500여톤을 신규 공급하게 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남원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전 미곡종합처리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를 추진해왔으며,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가을철 안정적 산물벼 출하와 고품질 쌀 안정적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벼 투입구 확충과 건조·보관시설, 도정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현대화를 추진했다.

특히, 남원시는 지난해 남농영농조합법인에 전복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 공모사업을 유치해 2002년 RPC 운영이후 처음으로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농산물 소비시장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남농영농법인에 국비 2억1,000만원과 시비 6,300만원, 자부담 1억4,700만원(총 4억2,000만원)을 투자해 도정시설, 색채선별기, 컨트롤텍스 등 획기적인 설비를 갖췄다.

남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

남원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과, 배, 단감, 꺾임 감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당초 2월말에서 3월 13일 까지 연장하고, 11월 27일 까지 관내 지역 농·축협에서 버섯재배 등 원예시설 품목의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잦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 품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85%까지 지원하며 농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15%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악취대책위와 소통 해결방안 노력

부군수실서 대책위와 면담

최근 발생한 인계 노동리 악취문제와 관련해 악취대책위와 행정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다. 지난 27일 순창군청 부군수실에서 악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공동대표인 이종진, 양희철 등 관계자 4명과 전해성 부군수가 만났다. 이 자리에는 관련 분야 실·국장과 과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인계 노동리 악취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군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 황숙주 군수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협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도 제출한 상태다. 현재는 군청 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이어가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대책위 활동이 장기화되고 천막 농성이 이어지며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도 행정과 대책위의 빠른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만남이 갈등해결에 분수령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날 만남에서 대책위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군청 앞 천막농성



지난 27일 순창군청 부군수실에서 악취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이종진, 양희철 등 관계자 4명과 전해성 부군수가 만났다.

에 대해서 회원 전체 의견을 들어서 철수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은 부군수와 임원진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 해당업체의 철저한 감시와 위반행위 발생시 엄정한 행정처분, 장덕마을 주민 위로 방문 등이다. 순창군에서는 제시된 요구사항은 원만한 합의를

찾아 성숙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으로 원만하게 회의를 마무리했다.

전해성 부군수는 "대책위와 소통을 강화해 현재의 갈등관계를 해소시키고 군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악취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IMSEOL CHEESE
임실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